

전진바이오팜, 반려동물 전용 프리미엄 사료 브랜드 '네이처플랜' 론칭

- ▶ 천연 소재 기술 접목한 프리미엄 반려동물용 사료 출시
- ▶ 반려동물 바이오 신소재 개발 위해 기술 개발 로드맵 구축



▶ 사진자료 : 네이처플랜

<2022-03-31> 전진바이오팜(주)(대표이사 이태훈, 110020)은 반려동물 전용 프리미엄 사료 브랜드 '네이처플랜'을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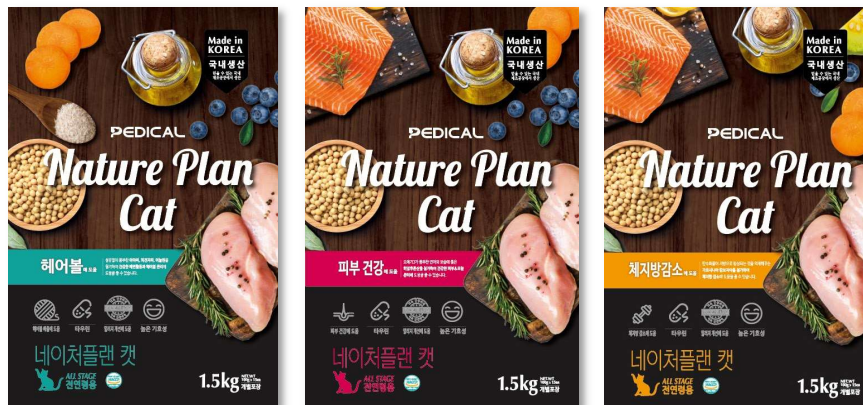
네이처플랜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내추럴 레시피를 제안하는 프리미엄 사료 전문 브랜드로 반려견·묘 전용 사료 7종을 4월 내 출시할 예정이다.

사료 7종으로, 반려견 기능성 사료 4종(관절건강, 피부·모질, 눈건강, 체지방 감소)과, 반려묘 기능성 사료 3종(헤어볼관리, 피부, 체지방 감소)을 선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료비'(33.4%)와 '간식비'(17.8%)로 식비 관련 지출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펫푸드시장 규모는 약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019년에 비해 15% 증가하였다.

네이처플랜은 전진바이오팜과 포파코가 함께 특허 출원한 치아시드 추출물 및 다양한 천연추출물을 포함하고 있어 다량의 오메가3, 단백질, 비타민 함유와 더불어 호흡기 질환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전진바이오팜 관계자는 "지난 11월 반려동물용품 공동브랜드 '페디칼(Pedical)' 출시 이후 협력의 첫 성과물로 프리미엄 사료를 론칭하게 되어 기쁘고 올 상반기 내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먹거리 출시와 더불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 계획" 이라고 전했다.



▶ 사진자료 : 네이처플랜 반려동물 전용 프리미엄 사료 7종

전진바이오팜은 반려동물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해 기술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고 반려동물에 특화된 프리미엄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포파코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천연소재와 제형기술을 활용해 유해 생물 피해 감소제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지난 11월 반려동물용품 공동브랜드 '페디칼(Pedical)'을 출시했다. 현재 전국 76개소 직영점 및 대리점을 기반으로 국내 반려동물 용품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반려동물 용품 시장을 이끌어 나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전진바이오팜의 네이처플랜은 온라인 및 폴리파크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자료문의

전진바이오팜(주) 문석준 차장 053-593-7192/ sjmoon@jbbio.co.kr